



디지털 도어록 안전성 대폭 강화

전기충격에도 안전 / 비상시 노약자 쉽게 열수있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는 필수품으로 여길 정도로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도어록'의 한국산업규격(KS)이 한층 강화되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 고부(姑婦)가 사망한 원인으로 디지털도어록 개폐장치의 오동작이 의심된 바 있어 비상시 쉽게 열릴 수 있는 수동개폐장치의 장착을 요구하는 여론이 대두되었고,

또한 최근 특수한 목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전기충격기에 의해 디지털도어록이 쉽게 열릴 수 있음이 신문·방송에 보도됨에 따라 200만여 세대의 디지털도어록 사용 소비자가 불안감에 휩싸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와같이 디지털도어록의 안전성이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생산업체 및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3만 볼트의 고전압에서는 열리지 않으면서,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노약자나 어린이가 내부에서 쉽게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수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KS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따라서, 현행 KS에 전기충격시험과 수동개폐장치의 의무화 및 이에따른 토크시험을 추가

하는 KS 개정(안)을 1월 17일에 확정하였으며, 올 4월경에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KS인증 디지털도어록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디지털도어록 개정 내용

○ 전기충격시험

KS IEC 61000-4-2에 의해 정전기 발생기로 금속 부분은 접촉으로 25kV, 비금속 부분은 기중 방전으로 30kV의 펄스를 각각 10Hz 주기로 연속 200회를 5장소에 +/-로 가하여 열리지 않아야 함

○ 수동 개폐장치 토크시험

토크렌치로 수동 개폐장치의 손잡이를 수직으로 회전토크를 측정하여 0.1N·m 이하에서 열려야함

○ 수동 개폐장치의 의무화 및 표시사항

수동 개폐장치의 손잡이는 표면에서 충분히 돌출되어 쉽게 눈에 띄고 조작이 편한 구조로 내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보조기도 KS 적용범위에 포함

디지털도어록의 주기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보조기도 KS인증이 가능하도록 KS C 9806을 개정함